

예수의 푸른계절을 꿈꾸며 함께하는 두손모임  
박 철수 - 최 정순 선교사

사랑하는 동역자 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 때, 특별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단순히 누리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주께 간구하며, 사랑하는 동역자 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심으로, 감사함과 함께 5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루어진 몇 가지 사역들을 말씀드리고, 또 기도해 주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드립니다.

\* 지난 2월 마지막 주 (2/23) 11명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11명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2020년 첫 침례식인 이번 침례식에서, 3번의 침례교육과, 개인적인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후에, 11명의 청년, 학생 그리고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요 가족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8개의 행복한 목장 모임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정부의 특별지시로 잠시 모임을 멈추고 있지만, 지난 3월 말까지 8개의 목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며,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복한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로 안타깝고 힘든 삶의 상황들 때문에 함께 울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가족이 목장의 새 식구로 등록될 때면 더없는 기쁨과 설렘으로 목장 모임은 행복 그 자체가 됩니다.

아직도 예비목자들을 더 세우지 못해, 목장마다 10여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목원들의 좁은 단칸 방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목자로 세워질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과정이 조속히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Панкур Batu 목장



목자 및 청년 리더 모임

\* 화요일도 팀이 '땅 밟기 기도'를 하며 열심히 전도.



화요일도팀



화요일도팀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한 전도팀이 주변 지역을 걸으며,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역리를 통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발걸음을 통해,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마음과 시간을 드려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빕니다.

\* 이곳 인도네시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

온 세상이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진정 상태로 들어가 있어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곳 인도네시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수도인 자카르타를 비롯하여 전국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수마트라 섬 메단지역도 공항과 모든 도로, 직장, 각급 학교, 모든 종교 시설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티오키아 교회 역시 모든 집회를 멈추라는 정부의 지시로 인하여, 집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직 믿음이 너무 약한 성도, 신앙생활한지 얼마되지 않은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곳은 인터넷 사정이 좋지 못하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매주 예배순서와 설교문을 프린트해서 예배를 위해 매주 가정마다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목장의 목자들을 통해 자주 소통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두 집에 자가 격리상태로 있어야 하며, 특히 체류 외국인들은 이민국 공무원들이 수시로 와서 집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4시 경에도 공무원들이 다녀갔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내인 최 정순 선교사의 극심한 치통과 저의 건강 검진 때문에 한국에 잠시 귀국해야 해서 본부와 파송교회의 허락을 얻어, 5월 10일 자카르타 출발 항공 티켓을 구입했었는데, 지난 4월 30일부로 갑자기 모든 국내선 항공의 운항이 정지되고, 모든 도로가 통제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곳 병원 사정이 워낙 열악하기도 하고,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선교사의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30일까지 1차 전국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호전 되어서 통제가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 통제와 봉쇄로 인해 일터를 잃은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별히 저희 안티오키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루하루 일당으로 일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터를 잃은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당장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끼니를 굶는 성도가 없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긴급한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교회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4월 셋째 주에 쌀과 기름 등을 담은 자그마한 구호품을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주께서 돕는 손길을 더 붙여 주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계속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몇 가지 저희의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1. 이 고난의 시기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박 철수, 최정순 선교사가 더 깊은 주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2. 저희 부부의 건강 ( 최 선교사의 치통, 박 선교사의 갈비뼈 골절과 정기 검진)을 위해서.
3. 메단 안티오키아 교회의 모든 목자들과 스텝,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회로 삼도록.
4. 6월초에 공항과 도로의 봉쇄가 풀려서, 한국에서의 치료와 진료가 가능해 지기를 위해서.
5. 주께서 속히 이 어려움을 풀어 주셔서 예배와 훈련, 특히 생명의 삶 훈련 개강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 지도록.
6. 7월에 해산하는 딸의 건강과 주께서 주신 태아를 주께서 축복하시도록,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들(박 준영)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푸른 계절을 꿈꾸며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박철수, 최정순 드림